



'22년 1분기 해외건설정책과장 주재 해외건설 대기업 간담회 결과보고

업무보고

2022.1.28

□ 개요

- 목적 : 해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수주전략 지원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일시/장소 : '22. 1.26(수) 10:30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정식 사무관, 권지현 사무관 등 4인
 - 협회 : 정책지원센터장, 아시아실장 등 4인
 - 기업 :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해외건설기업 임직원 10인
 - KIND : 사업개발본부장 등 3인
- 안건
 - '22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 COP 26 결과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중앙아시아 인프라 및 PPP 사업 동향
 - 각 기업별 '22년 수주목표·전망 및 주요전략,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주요 내용

- 해외건설정책과장
 - 참석해주신 기업을 비롯한 해외건설기업에서 노력으로 2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지난 25일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9,000억 달러 달성 및 1조 달러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밀착형 간담회 개최하게 되었고

해건협, KIND에서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고 목표를 잘 성취해내기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함

○ 기업별 주요 내용

■ 삼성물산

- 2021년 해외수주 규모 약 69.7억불 달성
- 2022년 해외수주 계획 규모는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40억불을 목표
- 중점지역 중동, 아세안,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신시장 개척 의지도 있으며, 복합화력, LNG, 공항, 메트로 외에도 신재생, 수소 등 미래트랜드 사업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 함
- 각 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다양한 금융지원이 필요함

■ 삼성엔지니어링

-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수요 회복에 따른 화공 시장 발주처들의 투자 재개를 조심스럽게 전망
- 발주처, 유가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위해 FEED 등 앞단 사업 영역으로 확대 추진 중
- 1월 이후로는 해외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이나 해외에서 복귀 시 자가격리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애로가 있어 자가격리 면제 등 제도완화가 필요함
-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서 한국 ECA 금융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우리 업체 수주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현대건설

- '22년 수주목표는 49억 달러 수준
- 해외투자에 대한 스탠스를 확장하여 개발사업 추진도 확대 예정
- 수소플랜트, 원자력발전,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등에 핵심 기술 및

설계 역량 확보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 계획

■ 현대엔지니어링

- '22년 수주목표는 30억 달러 수준
- 유가 상승 및 코로나19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따라 발주 물량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체감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
-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산업 기술 변혁 등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시장조기 진입을 통한 시장 선점
- 화상 Network로는 수주활동에 한계가 있음, 사업 협의 / 진행 / 계약을 위해 국내 인원 타국 방문시, 발주처 인원 야국 방문시 입출국 관련 업무 적극 지원 (격리면제 등)

■ GS건설

- '22년 중점 진출 분야로는 호주 인프라 사업 확대이며, '22년 호주 PPP 사업 부족으로 대규모 도급 사업 참여 추진 중
- 개발사업은 제안형 PPP 사업 발굴 진행 중(인도네시아 발리 공항 철도, 방글라데시 Circular Rail 등 대상으로 F/S 중 / 추가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수자원 사업 등 검토 중)
- 인니 신수도법 통과 이후 이전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는 만큼, 정부 등에서도 사업 정부 공유를 요청드리며, 관련 사업 투자 제안 시 F/S 비용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두산중공업

- 유가회복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에서 담수, 복합발전, 원자력 분야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ESS, 수소분야의 성과도 기대하고 있음
- EPC 역량, 기술력,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발전/담수 EPC Player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해외 영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 제약 사항 지원 필요 : 각국 Project 발굴 및 영업을 위한 Visa 및 입국 허가(예외적 여권사용 등) 지원, 본국 입국 시, 자가 격리 기간 간소화

- 금융 조달 지원 : 국내 업체의 해외 사업 (플랜트 및 건설 등) 진출 시 국내 금융 기관 및 관련 협회들의 적극적인 지원 (Financing 및 보증 등)
- **DL E&C**
 - 수주목표는 플랜트 25~30억 달러, 토목 4~5억 달러 수준
 - 기존 기조와 달리 공격적으로 해외진출할 예정으로 아프리카나 CIS 등 신시장 지역에서도 파일럿 사업 추진 예정
- **SK에코플랜트**
 - 호주사업 입찰 참여 중으로 3월 중 결과 발표 예정이고 노르웨이 Rv.555 사업에 KIND 함께 투자 참여 중
 - 선진국에서는 입찰형, 개도국에서는 제안형 사업 위주로 활동 중
 -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 소모로 PPP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PPP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 중
 - 실무진 해외출장 시 한국 내 격리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 **포스코건설**
 - '21년에는 사내 정책에 따라 해외수주를 억제했으나 '22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 추진 예정
 - 중남미, 유럽, 동남아 시장 등 기진출 주력시장에 수익성 위주로 진출할 예정이며 모회사인 포스코의 투자 사업도 추진
 - 공기업이 추진하는 PPP사업에 EPC사로 참여코자 하니 관련 사업 정보 제공을 바랍
- **대우건설**
 - '22년 수주목표는 15억불 수준
 - 중동 가격경쟁 입찰은 지양하고 이라크에서 추가사업 발주에 대한 준비 중이며, 리비아 재진출, 나이지리아 및 모잠비크에서 수주활동 중임
 - PPP, PFI 등 개발형사업의 금융, 정책적 지원 지속 필요
- **KIND**
 -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KIND의 투자 규모도 지속 확대하겠음
 - 작년 306억불 중 GS건설이 수주한 호주 교통 인프라 사업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이 10.2%로 작년 대비 활성화되었고, 올해도 호주 및 노르웨이 등에서 투자개발사업 추진 중임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활동을 하지 못해 F/S 지원사업 지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개발사업의 추가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됨

○ 국토부 권지현 사무관

- 작년 3분기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했으나, '21년 연말부터 확산된 오미크론으로 인해 실무자급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
-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최대한 제도 완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국토부 이정식 사무관

- 수은의 EDCF 등 금융지원 관련하여 기재부 국제경제과와의 정례 회의(수주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음

○ 해외건설정책과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PPP분야는 KIND, 공기업 등과 함께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인니 신수도 사업 관련하여 EIPP 등 연구중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복청 파견 복귀자와의 간담 자리를 마련하겠음
- ECA의 금융지원확대 관련 금융조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건의하겠으며, EDCF 구속·비구속성 관련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여 대응하겠음

□ 향후 계획

-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검토 등. 끝.

- 정책지원센터 -

붙임 : 주요 참석자 명단. 끝.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국토부	과장	오성익	회의 주재
	사무관	이정식	
	주무관	이주원	
	사무관	권지현	
해건협	센터장	정창구	
	차장	정지훈	
	실장	김종국	
KIND	본부장	임한규	
	팀장	박재혁	
	팀장	최보경	
해외 건설 기업	그룹장	문상윤	
	그룹장	박재홍	
	상무	박주희	
	상무	김도형	
	상무	김지훈	
	부장	송한승	
	상무	조호진	
	그룹장	장우진	
	부장	신동준	
	부장	엄상준	